

## 8월 28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28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 증시, 매물소화 8일째 상승..다우 0.39%↑</p>	<p>뉴욕증시가 27일(현지시간) 장중 조정을 통해 가격부담을 덜어내고 상승세를 이어갔음. 다우 지수는 8일째 오름세를 기록했고, 지수들은 연중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37.11포인트(0.39%) 상승한 9,580.63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30포인트(0.16%) 오른 2,027.73을, 대형주 중심의 S&amp;P 500 지수는 2.86포인트(0.28%) 상승한 1,030.98을 기록했다.</p> <p>뉴욕증시는 오전중 약세를 면치 못했으며 다우 지수가 장중 0.88% 떨어진 가운데 나스닥 지수와 S&amp;P 500 지수도 장중 1.55%와 1.16%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음. 그동안 많이 오른데 따른 가격부담이 작용한 것으로보임. 뉴욕증시는 5개월 연속 상승했고, 특히 다우 지수는 전날까지 7일 연속 올라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음. 특히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문제 은행(problem bank)`이 지난 2분기중 36%나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증가했음. 여기에다 국제유가가 장중 배럴당 70달러선을 하향 이탈한 여파로 대형 에너지주가 하락하며 지수를 압박했고, 주택건설업체 톨 브라더스의 분기손실 확대는 주택건설업종의 매물을 불러들였음. 그러나 뉴욕증시는 장중 조정을 통해 가격부담을 덜어내고 오후들어 반등세로 돌아섰음. 특히 장세를 낙관한 투자자들은 시장이 밀리자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적극 활용했음. 이날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의 블루칩 종목중에서는 17개 종목이 상승했고, 13개 종목이 하락했음.</p> <p>한편 오후들어 뉴욕증시가 낙폭을 급격히 줄이고 반등세로 돌아서자, 미 국채 시장과 외환시장, 원유시장도 일제히 출렁거렸음. 증시 반등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채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세로 돌아섰고, 국제유가도 미증시가 반등하자 덩달아 상승세로 돌아서 배럴당 72달러선을 회복했음. 또 유가가 반등하자 외환시장에서는 원자재 수출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냈음.</p>
<p>美 2분기 GDP 수정치 -1.0%..예상보다 양호</p>	<p>미 상무부는 2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로 1.0% 기록했다고 밝혔음. 이는 지난달 발표된 예비치 -1.0%와 동일한 수치임. 미국의 GDP는 예비치와 수정치, 확정치 등의 순서로 발표된다. 이번에 발표된 수정치는 예비치와 변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망치보다 양호했음.</p>

제목	주요 내용
주간 실업수당, 3주만에 감소볼구 `예상보다 많아`	미 노동부는 지난주(22일 마감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 58만건(수정치)보다 1만건 감소한 57만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감소세는 3주만임. 그러나 지난주 신규 청구건수는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다. 블룸버그통신이 조사한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56만 5,000건이 예상되었음.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살피는데 도움을 주는 4주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4,750건 감소한 56만 6,250건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사흘만에 반등..배럴당 72달러	국제유가가 사흘만에 반등하며 배럴당 72달러선으로 마감했음. 국제유가는 장중 70달러선이 깨지기도 했지만 미 달러화 약세 속에 뉴욕증시가 장중 반등세를 보이자, 덩달아 오름세로 돌아섰음. 27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06달러(1.48%) 상승한 72.49달러로 마감했음.
7월 경상수지 +44억 불..6개월 연속 흑자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44억달러로, 전월 54억 3,000만달러에서 10억 3,000만달러 감소. 지난 1월부터 7월까지의 경상수지 흑자 누적규모는 지난달의 217억 5,000만달러에서 261억 5,000만달러로 늘었음.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상품수지에서 61억 7,000만달러 가량의 큰 폭의 흑자가 시현. LCD 패널과 반도체 등 IT 부문 제품의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며 주효했음. 수입과 수출 모두 전월보다 증가하는 모습이었음. 수출은 지난 6월보다 20억달러 늘어난 335억 7,000만달러, 수입은 또 원유와 자본재 수입이 소폭 늘면서 전월보다 24억 4,000만달러 증가한 274억달러를 기록했다.
3분기 성장률 1% 웃돌 듯	27일 기획재정부와 민간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오는 3분기 GDP의 전기대비 성장률은 애초 정부 예상치인 1%를 넘을 것이란 전망이 점차 우세해지는 분위기. 국내 경제의 전기비 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각각 0.4%, 0.2%에서 4분기 -5.1%로 급락한 이래 올 1분기 0.1%, 2분기 2.3%를 기록한 바 있음. 예상을 뛰어넘은 2분기 선전으로 인해 3분기 성장률은 1%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있어왔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전망한 대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1.5%를 비롯, 3분기와 4분기 각각 전기대비 1% 성장률 전망치는 현재로선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음.
녹십자, 신종플루 백신 57만명분-91억 공급계약	녹십자(006280)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이하 신종플루) 백신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음. 양측은 이번 계약을 통해 신종플루 백신 113만7,500도즈(약 57만명분)을 91억원에 공급키로 합의. 1도즈당 계약금액은, 8,000원으로, 1명분(2도즈)에 1만6,000원. 납품기간은 오는 11월30일까지며, 계약기간은 1년 뒤인 2010년 8월27일까지다. 이번 계약은 단일공급계약으로 양측은 향후 추가 계약을 통해 새로운 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